

대학(원)생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음주억제 및 충동성이 음주문제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양 모 현 류 준 범[†] 이 경 순
삼성해밀소아청소년클리닉 도로교통공단 서울심리발달센터

음주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 억제와 충동성 요인 모두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가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나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개인의 조절 능력이 음주문제와 음주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억제, 충동성 및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음주억제와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악화시키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주억제의 두 하위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93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음주문제에 대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음주 억제 및 충동성에 대한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음주억제와 충동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에게서 음주문제가 가장 높아지는 상승효과가 나타났지만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량에서는 세 변인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추가분석에서 인지/정서적 집착이 낮은 사람들은 인지/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적게 나타났고 인지/정서적 집착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조절 전략, 음주억제, 충동성, 음주문제, 음주량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류준범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07
Tel : 02-2230-6345 / E-mail : guru74@koroad.or.kr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 가령, 사회적 상황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유쾌함을 느끼고 싶을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술을 마시게 된다(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이처럼 적당한 음주는 술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만 폭음과 같은 지나친 음주는 개인 및 사회에서 학업문제, 폭력, 대인관계 문제, 음주운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폭음이 음주량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인 만큼 음주에 대한 통제 및 조절 변인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가령, 고유미, 현명호, 박지선(2009)의 연구에서는 음주 통제와 관련된 변수로 음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술을 적게 마시고, 음주억제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량 및 음주문제가 많았다. 정수진(2010)의 연구에서는 음주 통제 요인 중 충동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 때 음주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통제와 관련한 여러 변인들 중 음주억제, 충동성 및 정서조절 방향을 중심으로 문제음주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ollins와 Lapp(1992)은 음주억제에 대하여 자신의 음주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음주를 억누르려고 애를 쓸수록 그 노력이 실패했을 때 더 많은 음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통제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걱정하느라 통제와 관련한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면

서 실제 통제에 관여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음주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Collins와 Lapp(1992)에 따르면 음주억제는 음주단서에 민감한 경향과 관련된 인지/정서적 집착(cognitive and emotional preoccupation), 그리고 술 마시는 행동을 통제하려는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과 관련된 인지/행동적 통제(cognitive and behavioral control)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인지/정서적 집착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량이 높아지는 반면 인지/행동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량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억제의 두 요인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들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반복 검증되지 못했다. 가령, 대학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Mackillop, Lisman 및 Weinstein(2006)의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적 집착과 인지/행동적 통제가 모두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Williams 및 Ricciardelli(1999)의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적 집착 변인만 음주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청소년 음주 척도(ADI; Adolescence Drinking Inventory)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인지/정서적 집착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인지/행동적 통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Ricciardelli, Williams & Finemore, 2001)에서는 인지/정서적 집착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지/행동적 통제 요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음주억제의 하위유형에 따른 음주문제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음주억제와 함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충동성을 다

루었다. 충동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충동성은 음주문제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서 신정연, 손정락(2011)은 충동성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내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급하고 무계획적으로 반응하는 사전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부족은 음주행동의 조절을 어렵게 만들면서 음주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여러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Kane, Loxton, Staiger, 그리고 Dawe(2004)의 연구에서 음주와 폭식 문제를 함께 지닌 여자들은 폭식문제만 지닌 여자들보다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Lyvers, Duff, Basch 그리고 Edwards(2012)의 연구에서는 위험 음주자 집단이 일반 음주자 집단에 비하여 충동성이 더 높았다. 특히 음주억제와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조절효과를 알아 본 최근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적 통제 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이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Mitchell, Cohn & Hagman, in press).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에 미치는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국내 표본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때때로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술이 부정적인 기분을 줄여주고 쾌감을 높여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주를 하기도 한다. 대처 이론(Carver & Scheier, 1990)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에 대한 대처동기가 발생하며 기분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 기대를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Hufford(2001)의 연구에서는 부정 및 긍정

기분을 측정하거나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을 때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들에서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들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로 괴로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얼마나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이지영, 권석만(2007)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크게 인지적, 체험적, 행동적 전략으로 구별하였고 총 16개의 하위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이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16개의 하위전략을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과 3가지의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얻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와 ‘친밀한 사람 만나기’ 등 3개 전략은 ‘지지추구적 전략’,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 등 3개 전략은 ‘주의 분산적 전략’,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감정 수용하기’ 등 4개 전략은 ‘접근적 전략’에 포함되어 총 10개의 하위전략이 적응적 전략으로 구분되었다.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기’ 그리고 ‘탐닉활동하기’ 등 6개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조절 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는 흡연, 성행위, 컴퓨터 게임과 함께 ‘중독가능 활동하

기' 방략에 포함되어 있어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정서조절 능력이 음주행동의 주요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예, 정수진, 2010)를 제외하면 정서조절 능력과 음주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다. 정수진(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 곤란이 충동성과 음주문제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음주 이외의 다양한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적응적으로 정서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사교 및 기분고양의 목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으므로 음주량이나 음주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음주억제와 충동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악화시키는 지를 알아보았으며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억제의 영향력을 충동성이 강화하여 음주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은 음주억제 및 충동성과 함께 음주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적게 사용하였을 때 음주문제에 미치는 음주억제 및 충동성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억제의 두 하위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도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충청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9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명을 제외한 2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08명(36.9%), 여자 185명(63.1%)이었다. 연령범위는 18세부터 54세까지였고 평균 연령은 22.98세(SD= 5.39)였다. 음주 경력의 범위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16명)부터 25년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음주 경력은 4.30년(SD=4.23)이었다.

측정도구

음주 유혹 및 억제 척도(Temptation Restraint Inventory, TRI)

음주 억제수준은 Collins와 Lapp(1992)이 개발하고 고유미, 현명호, 박지선(2009)이 번안한 음주 유혹 및 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 9점(0점~8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유혹 및 억제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 즉 9문항의 인지/정서적 집착(cognitive and emotional preoccupation) 요인과 6문항의 인지/행동적 통제(cognitive and behavioral control)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정서적 집착은 음주 단서에 민감해지고 음주 관련 사고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인지/행동적 통제는 술 마시는 행동을 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배리맥스 회전을 한 주축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번부터 14번까지 문항은 원본과 동일한

표 1. 유혹 및 억제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공통분
1. 불안할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785	.090	.625
2. 외로울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766	.110	.599
4. 가끔씩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674	.190	.490
6. 꼭 술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732	.166	.563
7.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670	.181	.481
9.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까?	.591	.261	.418
11. 술에 대한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709	.298	.591
13. 음주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676	.343	.574
15. 음주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462	.591	.563
3. 음주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028	.584	.341
5. 다른 사람들이 술마시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음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190	.718	.552
8. 술과 관련된 TV광고, 잡지광고 또는 주류판매점 간판을 보면 자신의 음주에 제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까?	.214	.714	.556
10. 과음에 대한 죄책감이 술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162	.472	.249
12. 술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자신의 음주에 제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133	.666	.461
14.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시도로서 술을 줄여본 적이 있습니까?	.377	.673	.595

주. 요인 1: 인지/정서적 집착, 요인 2: 인지/행동적 통제

요인에 부하되었으나 고유미 등(2009)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15번 문항이 두 요인 모두에 요인이 부하되어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는 인지/정서적 집착이 .90, 인지/행동적 통제가 .8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요인 1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점수 평균은 ‘인지/정서적 집착’ 점수, 요인 2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점수 평균은 ‘인지/행동적 통제’ 점수이며 두 점수를 합산하면 음주억제 점수가 된다.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

충동성은 이현수(1992)가 Barratt의 충동성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0점~3점) 리커트 척도로 된 총 23개 문항으로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인지 충동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수진(2010)의 연구와 유사한 요인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요인부하량이 낮은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2.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13.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행동한다’, ‘15. 앞뒤 생각없이 행동한다’,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요인 1은 운동 충동성 11개 문항, 요인 2는 무계획 충동성 4개 문항, 요인 3은 인지 충동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는 운동

충동성이 .75, 무계획 충동성이 .65, 인지 충동성이 .60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 ERSQ)

정서조절 전략은 이지영, 권석만(2007)이 개발한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조절 전략은 총 69문항으로 리커트 7점(0점~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는 생각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등 5개의 요인의 인지적 방략, ‘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감정 수용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등 5개 요인의 체험적 방략, 그리고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문제해결 행동 취하기’, ‘폭식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 ‘중독

표 2. 충동성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동분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다	.666	-.224	.079	.500
22.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한다	.637	-.027	.063	.410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 받는다	.619	-.158	-.003	.408
18. 특별한 계획없이 기분나는 대로 물건을 산다	.578	.173	-.023	.365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547	.218	.019	.347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546	.029	.239	.356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에 착수한다	.517	.211	-.156	.336
7.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이 든다	.502	.241	.102	.321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 좋다	.491	.287	-.149	.346
20.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다	.476	-.021	-.078	.233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306	.000	.291	.178
9.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고려한다	.069	.724	.015	.530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159	.680	.111	.501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163	.602	.275	.464
3. 여행을 떠나기 전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113	.560	.113	.339
5.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028	-.011	.699	.490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003	.214	.697	.532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009	.377	.615	.521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064	.049	.548	.307

주. 요인 1: 운동 충동성, 요인 2: 무계획 충동성, 요인 3: 인지 충동성

가능 활동하기' 등 6개 요인의 행동적 방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이지영, 권석만(2007)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는 인지적 방략이 .84, 체험적 방략이 .74, 행동적 방략이 .81로 나타났다.

음주문제

음주문제는 신행우(1998)가 개발한 20개 음주문제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음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리커트 5점(0점~4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

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행동상의 문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등 2개 요인으로 보았던 정수진(2010)의 연구와 동일하게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그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5개 문항은 제외하였다('2. 술을 마신 뒤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6. 술을 마신 뒤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말다툼한 적이 있다', '7.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후에 분노를 터트리게 된다', '12. 술을 마신 뒤에 부모님 혹은 이성 친구와 마찰이 생긴다', '20. 술 마

표 3. 음주문제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공통분
10. 내가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시는 것 때문에 또는 취중행동 때문에 친구와 다툼 적이 있다	.854	.330	.838
19. 술에 취해 치고 박고 싸운 적이 있다	.780	.228	.660
15.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	.766	.263	.656
4.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755	.250	.633
9. 술을 마시고 시비나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다	.745	.389	.706
11.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술 취한 후에 언쟁을 벌이게 된다	.736	.401	.703
14. 술을 마시면 술주정(주사)을 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자주 핀잔을 듣는다	.718	.305	.608
8. 술을 마시는 동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654	.277	.505
13.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이나 취중 행동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586	.361	.474
1. 과음으로 인해 지각한 적이 있다	.230	.848	.771
16. 과음으로 인해 결석한 적이 있다	.312	.811	.754
3. 술로 인해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다	.216	.752	.613
18. 술 때문에 나의 의무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375	.649	.550
5. 술 때문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359	.651	.565
17. 부모님은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한다	.346	.477	.347

주. 요인 1: 행동상의 문제, 요인 2: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시는 것 때문에 수업이나 성적취득 또는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는 행동상의 문제가 .95,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 .91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음주량

평소 술을 마실 때 한 번에 얼마나 마시는지를 맥주(cc), 소주잔, 소주병 중 하나를 골라 기입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맥주 200cc 당 소주 1잔으로 환산하였고 소주 1병 당 소주 8잔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조절 전략들 중 이지영(2010)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조절전략으로 분류된 6개 전략('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기', '탐닉활동하기')만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으므로 부적응적 조절전략들을 모두 합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성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음주문제 및 음주량에 대하여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고 음주억제, 충동성 및 부적응적 조절 전략을 독립변수로 한 3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을 위해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전략 변수의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음주억제의 하위요인들이 음주문

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억제의 각 하위요인에 따른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 및 성차분석 결과

정서조절 전략, 음주억제, 충동성, 음주문제, 음주량의 상호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음주억제의 모든 하위요인과 음주억제의 총합은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과 충동성의 총합은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인지 충동성은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전략은 음주억제, 음주문제, 음주량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적응적 전략들은 대체로 음주문제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중 접근적 전략은 음주문제의 하위요인 중 행동상의 문제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조절 전략의 16개 하위요인들과 음주문제 및 음주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조절 전략의 16개 하위 요인들과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의 상관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전략에 해당되는 6개 요인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

표 4.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음주억제	1. 인지/정서 집착	1.00														
	2. 인지/행동 통제	.45**	1.00													
	3. 음주억제 합	.88**	.82**	1.00												
정서조절전략	4. 부적응방략	.40**	.20**	.36**	1.00											
	5. 지지추구적 방략	.17**	.11	.16**	.10	1.00										
	6. 주의분산적 방략	.13*	.24**	.21**	.13*	.48**	1.00									
	7. 접근적 방략	.02	.07	.05	-.17	.41**	.39**	1.00								
충동성	8. 운동	.28**	.16**	.27**	.46**	.01	.04	-.11	1.00							
	9. 무계획	.02	-.06	-.02	.11	-.06	-.05	-.23**	.21**	1.00						
	10. 인지	-.01	-.11	-.06	.13*	-.07	-.10	-.34**	.08	.34**	1.00					
	11. 충동성 합	.12*	-.02	.07	.31**	-.06	-.06	-.34**	.56**	.78**	.72**	1.00				
음주문제	12. 직업 및 사회	.64**	.37**	.61**	.42**	.09	.10	-.05	.32**	.11	.05	.21**	1.00			
	13. 행동문제	.56**	.30**	.51**	.47**	-.05	.06	-.14*	.39**	.18**	.07	.28**	.68**	1.00		
	14. 음주문제 합	.65**	.36**	.61**	.49**	.01	.08	-.11	.39**	.16**	.06	.27**	.90**	.93**	1.00	
	15. 음주량	.42**	.19**	.37**	.27**	.09	.09	.01	.16**	.16**	.09	.19**	.45**	.33**	.49**	1.00
	평균	1.74	2.18	2.00	1.91	3.70	3.27	3.64	1.10	1.28	1.50	1.29	0.67	0.33	0.47	7.44
	표준편차	1.63	1.77	1.40	0.82	1.00	0.96	0.80	0.45	0.56	0.55	0.36	0.73	0.60	0.60	6.28

주. 5. 지지추구적 방략, 6. 주의분산적 방략, 7. 접근적 방략은 적응적 방략에 해당됨(이지영, 2010 참조)

* $p < .05$, ** $p < .01$

표 5. 정서조절 전략과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의 상관계수

		음주문제			음주량
		행동상의 문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음주문제 총합	
인지적 방략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16**	-.07	-.13*	.00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13*	.16**	.16**	.13*
	타인 비난하기	.27**	.23**	.28**	.13*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01	.03	.02	.10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14*	-.05	-.11	-.03
체험적 방략	즐거운 상상하기	.07	.07	.08	.02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연기	-.07	.06	-.01	.08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37**	.23**	.33**	.15**
	감정 수용하기	-.05	.02	-.02	.00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34**	.28**	.34**	.13*
행동적 방략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01	.10	.05	.09
	친밀한 사람 만나기	-.03	.09	.02	.07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11	-.05	-.09	.05
	폭식하기	.25**	.25**	.27**	.15*
	기분전환활동 하기	.05	.15*	.10	.13*
	탐닉활동하기	.51**	.47**	.53**	.40**

* $p < .05$, ** $p < .01$

하기’, ‘폭식하기’, ‘탐닉활동하기’ 모두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대부분의 적응적 방략은 음주문제 및 음주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적응적 방략에 해당되는 ‘능동적으로 생각하기’와 ‘인지적으로 수용하기’가 음주문제 중 ‘행동상의 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의 성차를 밝히기 위한 일원변량분석에서 부적응적 조절방략, $F(1,291)=.00$, $p=.97$, 과 충동성, $F(1,291)=.01$, $p=.92$,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주억제, $F(1,291)=5.00$, $p<.05$, 음주문제, $F(1,291)=7.02$, $p<.01$, 및 음주량, $F(1,291)=19.07$, $p<.001$,에서는 성차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음주문제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음

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공변인으로 한 3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 모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 각각의 점수가 낮은 조건에 비해 높은 조건에서 음주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억제와 충동성, 음주억제와 부적응적 조절방략, 충동성과 부적응적 조절방략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음주억제와 충동성이 모두 높은 조건에서는 음주억제와 충동성 중 한쪽만 높거나 모두 낮은 조건들보다 음주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억제와 부적응적 조절방략, 충동성과 부적응적 조절방략의 2원 상호작용 효과들 또한 두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조건에서 한 변인의 점수만 높거나 두 변인의 점수 모두 낮은 조건에 비해 음주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표 6.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억제, 충동성 및 부적응적 조절방략의 3원 공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F	η^2	p
Corrected Model	8	24.26	.41	.00
Intercept	1	50.13	.15	.00
성별	1	7.58	.03	.01
음주억제	1	49.79	.15	.00
충동성	1	11.07	.04	.00
부적응적 조절방략	1	40.09	.12	.00
음주억제*충동성	1	4.85	.02	.03
음주억제*부적응적 조절방략	1	16.12	.05	.00
충동성*부적응적 조절방략	1	5.19	.02	.02
음주억제*충동성*부적응적 조절방략	1	6.00	.02	.02
Error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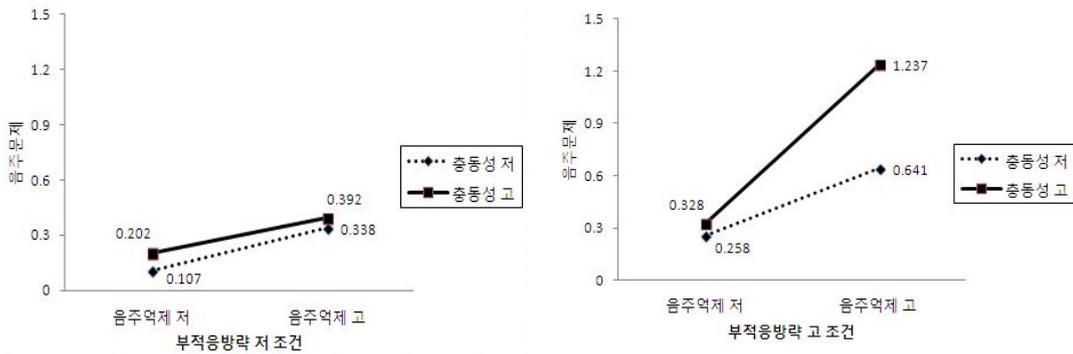


그림 1.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억제, 충동성 및 부적응적 조절방략의 3원 상호작용 효과

조절방략의 3원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3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높은 조건에서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290)=15.95, p<.001$. 단순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높은 조건에서는 음주억제가 높을 때 충동성 고 조건과 저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F(1,290)=28.59, p<.001$, 음주억제가 낮을 때에는 충동성 고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290)=.12, p=.73$.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낮은 조건에서의 단순 상호작용 분석 결과 2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290)=1.18, p=.28$.

음주량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음주억제, $F(1,289)=8.86, p<.01$, 충동성, $F(1,291)=4.71, p<.05$, 부적응적 조절방략, $F(1,291)=13.23, p<.001$, 세 변인 모두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 각각의 점수가 낮은 조건에 비해 높은 조건에서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억제의 두 하위 요인 즉 인지/정서적 집착과 인지/행동적 통제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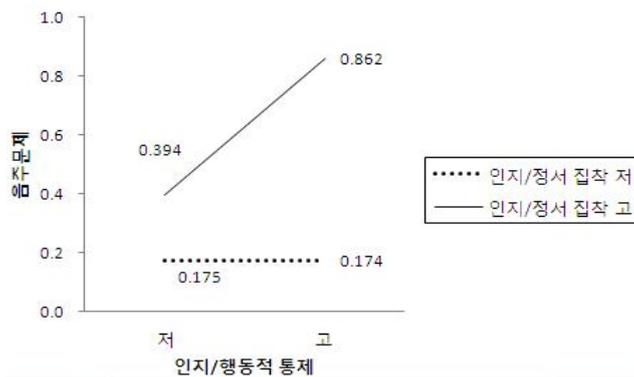


그림 2.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억제 하위요인들 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억제 하위요인들이 음주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문제에 대한 인지/정서적 집착과, $F(1,291)=48.36$, $p<.001$, 인지/행동적 통제, $F(1,291)=10.52$, $p<.001$, 두 변인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두 변인 모두 낮은 조건에 비해 높은 조건에서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효과 해석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제한된다. 상호작용 분석결과, 인지/정서적 집착과 인지/행동적 통제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291)=14.09$, $p<.001$. 즉 인지/정서적 집착이 낮을 때에는 인지/행동적 통제가 높은 조건이 낮은 조건에 비하여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1,291)=4.57$, $p<.05$. 반대로 인지/정서적 집착이 높을 때에는 인지/행동적 통제가 높은 조건에서 음주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F(1,291)=45.13$,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음주억제, 충동성, 정서조절 전략이 음주문제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음주억제와 충동성은 음주문제를 악화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예, Mitchell 등, in press). 또한 음주억제의 하위요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정서적 집착이 낮은 조건에서는 인지/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 변량이

크지는 않았으나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Collins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인지/정서적 집착이 높은 조건에서는 인지/행동적 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 음주문제가 많이 나타났다(Mackillop, 2006 참조). 즉 음주관련 단서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술을 줄여야 한다는 인지적인 통제 노력은 음주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주 관련 단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주 조절에 대한 인지적인 통제 노력이 오히려 향후 더 큰 음주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음주 관련 단서에 민감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억제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탈억제가 발생하여 폭음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더 큰 음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음주억제와 충동성이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커지는 상승효과가 나타난 반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음주문제의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적응적 조절전략은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음주억제만큼이나 음주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음주억제의 인지/정서적 집착은 인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고 충동성은 성격적 특성임을

고려한다면 부적응적 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치료적 중재를 통해 변화와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가령 음주억제가 높고 충동성이 높은 문제음주자들을 치료할 때 부정적 정서조절 훈련이 음주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 중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가 음주문제 중 행동상 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적응적 전략이 음주 문제에 기여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예를 들면, ‘치한 상황이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한다’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및 ‘행동상의 문제’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문항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문제 상황과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치료 상황에서 문제 음주자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음주문제 및 음주량 이므로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료를 제외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 1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해 본 결과, 음주억제와 충동성의 2원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수준이 $p=.03$ 에서 $p=.06$ 으로 변화하였으나 3원 상호작용 효과 및 다른 2원 상호작용 효과들과 주효과들은 동일하였다. 충동성과 음주억제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된 이유는 충동성 고집단과 저집단의 충동성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t(291)=-$

-23.025 , $p<.001$, 4점 리커트 척도(0~3점)에서 저집단 평균이 1.04, 고집단 평균이 1.62로 연구대상이 전반적으로 충동성이 높지 않은 집단이며 저집단과 고집단의 점수 차이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억제, 음주문제, 음주량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공변량분석을 통해 성차를 통제하였을 때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성별에 따라 효과의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서는 음주억제, 충동성, 부적응적 조절방략의 3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184)=4.10$, $p<.05$, 공변량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남성에서는 음주억제와 부적응방략의 2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106)=6.33$, $p<.05$, 3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06)=1.79$, $p=.18$. 이러한 성차는 음주억제가 낮은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즉 여성에서는 음주억제가 낮을 때 음주문제에 대한 충동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에서는 음주억제가 낮은 조건에서 충동성이 높으면 음주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비록 결과에서 성차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음주문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저위험군 조건에서 성차가 발견되었고 임상장면에서 치료대상이 되는 고위험군인 음주억제가 높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양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성차의 유의미한 임상적 함의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심각한 음주문제를 지니

지 않은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병리적인 음주문제를 지닌 집단이나 청소년 집단 등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 측정시 한 번에 마시는 1회 음주량을 조사하였다. 이 경우 한 번에 폭음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성은 연구에 반영될 수 있지만 조금씩 자주 음주를 하여 1회 음주량이 많지 않더라도 장기간 총 음주량이 많거나 빈도가 잦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다양한 음주행태 및 습관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유미, 현명호, 박지선 (2009). 대학생의 음주 억제와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891-909.
- 신정연, 손정락 (2011).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문제음주 대학생의 우울, 충동성 및 문제음주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279-295.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이지영 (2010).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조절곤란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21-841
- 이지영, 권석만 (2007).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의 개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63-976.
-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 가이던스.
- 정수진 (2010). 충동성, 사회적 지지가 폭식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 Carver, C. S., & Scheier, M. F. (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97, 19-35.
- Collins, R. L., & Lipp, W. M. (1992). The Temptation and Restraint Inventory for measuring drinking restraint.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625-633.
- Hufford, M. R. (2001). An examination of mood effects on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among undergraduate drinkers. *Cognition and Emotion*, 15(5), 593-613.
- Kane, T. A., Loxton, N. J., Staiger, P. K., & Dawe, S. (2004). Does the tendency to act impulsively underlie binge eating and alcohol use problems? An empirical investig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83-94.
- Lyvers, M., Duff, H., Basch, V., & Edwards, M. S. (2012). Rash impulsiveness and reward sensitivity in relation to risky drinking by university students: Potential roles of frontal systems. *Addictive Behaviors*, 37, 940-946.
- Mackillop, J., Lisman, S. A., & Weinstein, A.

- (2006).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Temptation and Restraint Inventory in two samples of college drinker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3), 157-163.
- Mitchell, J. N., Cohn, A. M., & Hagman, B. T. (in press). Testing the conjoint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drinking restraint on alcohol use consequences in college student drinkers. *Addictive Disorders & Their Treatment*.
- Ricciardelli, L. A., Williams, R. J., & Finmore, J. (2001). Restraint as misregulation in drinking and eating. *Addictive Behavior*, 26, 665-675.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140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1999). Restrained drinking and cognitive control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4(135), 557-565.
- 원고접수일 : 2013. 9.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4. 1. 16.
게재결정일 : 2014. 2. 9.

Effects of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rinking restraint, and impulsiveness 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consumption

Mohyun Yang

Samsunghemil
Psychiatric Clinic

Jun-Beom Ryu

Road Traffic
Authority

Kyoung-Soon Lee

Seoul Psychological
Developmental Center

Previous studies of drinking problems have shown that they are affected by drinking restraint and impulsiveness factors; however few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these factors have been conducted. Although it is also known that negative emotions predict drinking behavior, but few empirical investigations have been performed to reveal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ow drinking restraint, impulsiveness,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fluence on drinking problems and alcohol consumption to reveal major impact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The present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n=293) showed a three way interaction effect among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rinking restraint, and impulsiveness tha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drinking problems and alcohol consumption were affected by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rinking restraint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while impulsiveness aggravated drinking problems only whe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rinking restraint were both high, or low. Finall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rinking restraint, impulsiveness, drinking problems, alcohol consumption